클린하우스, 청정제주의 디딤돌!

'쓰레기'의 어원은 영어 slag(슬래그 : 광석을 용해할 때 생기는 찌꺼기, 녹은 쇠찌끼)와 slaggy(슬러지 : 하수처리 또는 정수과정에서 생긴 침전물. 오니(汚泥)라고도 함)에서 온 말이라고 한다.

옛 선인들은 인간생활의 3대 요소인 의식주(衣食住)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일상을 자연과 함께 하였고 쓰고 남은 것은 자연으로 되돌릴 수 있었으므로 생활 쓰레기가 거의 없었다. 예를 들어 옷이나 신발(짚신)도 낡으면 땔감으로 사용했고, 먹다 남은 음식물은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고, 집은 나무와 돌, 흙 등으로 만들어 재활용이 가능해서 조선시대 말기까지만 해도 쓰레기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다고 한다. '쓰레기'라는 말은 근대화 이후 서양문물과 함께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비닐, 나일론, 플라스틱 등을 사용하면서 생겼다고 한다.

제주시의 쓰레기 처리실태를 살펴보면, 1995년부터 쓰레기종량제를 시행한 이후 쓰레기 배출량 감소 및 재활용품 분리량의 증가를 가져 왔다. 그러나 집 앞 또는 근처 공터에 쓰레기를 배출하는 방법으로 인해 도시미관 저해, 비효율적인 수거체제로 인한 민원빈발, 과다한 예산소모 등의 행정적 낭비가 초래되었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2004~2005년 1년 동안 시책결정, 모형공고, 디자인 실시 설계 등을 걸쳐 쓰레기정책의 일대 혁신인 생활쓰레기 배출 선진시스템 '클린하우스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클린하우스는 일정한 장소에 종량제봉투,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등을 분리수거할 수 있는 바가림 시설을 설치하고 자동상 · 하차식 차량으로 수거 · 처리하는 선진 거점 수거방법을 말한다.

클린하우스를 국내 최초로 추진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은 시민들이 갖고 있는 종전 쓰레기에 대한 좋지 못한 인식 때문에 생긴 님비현상이다. 시민들이 클린하우스제도는 찬성하지만 자기 집 앞에 설치하는 것은 반대하여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역여론 지도층을 대상으로 사업의 효과, 당위성 등을 설명하여 현재까지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다.

예산투입 현황 및 계획을 보면 제주시 26개 읍 · 면 · 동에 2005~2012년까지 153억원을 투입하여 2,200여개소에 대해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 제주시 클린하우스 사업 실행 모습

제주시에서 매년 실시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 클린하우스 설치에 대한 만족도는 93% 이상으로 나타나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반면, 부정적인 측면도 나타났는데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악취 등 냄새(48%), 쓰레기 넘침(22%), 주변 불결(14%),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우선, 하절기에 발생하는 악취에 대비하여 클린하우스 내 음식물통에 미생물을 투입하고, 휴일에도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상가 및 주택 밀집지역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세척하고 있다.

그리고 노약자, 어린이들이 쓰레기 배출 시 가장 불편한 점으로 '종량제 분리수거함 뚜껑이 무겁다'라는 의견이 35%를 차지함에 따라, 종량제 봉투 10~20ℓ를 손쉽게 투입할 수 있는 2중 뚜껑이 달린 분리수거함을 제작·보급하고 있다.

앞으로도 제주시는 환경친화적 모범 서비스인 클린하우스 시설에 대한 전산화 관리를 통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첨단 IT서비스를 접목한 다양한 관리·운영지원 및 주민참여형 서비스 도입을 통하여 이용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생활쓰레기 배출 선진시스템인 클린하우스가 청정제주를 앞당기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강경엽
제주시 생활환경과 클린하우스담당
kykang@jeju.go.kr